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음 12월 24일) 제198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민선6기 도정 막바지 전략적 성과관리 돌입

도, 새천년 도약 프로젝트
 성과계약과제 · 공약 등
 도정 핵심업무 지표 설정

전북도는 민선6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주요 핵심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과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2020 전북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돌입한다.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도정 주요업무를 1인당 3~5건씩 책임관리 과제로 부여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민의 자존감 제고와 전북 역사·문화 재조명 프로젝트 추진 등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 성과계약과제(300여개), 공약사업(123개) 등 도정 핵심업무를 부서의 개인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운영해온 직무성과평가 가점제도도 대폭 확대·정비하여 도정 핵심업무의 성과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 분야 가점을 신설했다.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 분야에서 성과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8일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전북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업무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가 우수한 최우수부서를 선정해 부서 가점(0.05점)을 부여하고, 담당 직원에게도 개인가점(0.3점)을 부여한다.

그동안 부서가점만을 부여해 온 '이달의 으뜸도정상'도 올해부터는 개인 가점(0.3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정 핵심 시책에 대한 확인평가도 컨설팅 형 확인평가로 전환하였다. 도정현안인 10대 핵심 프로젝트, 8대 역점시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인 점을 감안하여 삼각농성,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시책의 추진 상황은 물론 '핵심시책에 대한 시군 협력 및 홍보' 사항도 점검함으로써 3대 핵심시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도 변화할 전망이다.

기관별 핵심프로젝트를 도정과 연계하고 도와 끊임없이 소통·협력해 도정방침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 및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장 연봉·임직원 성과급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영개선 의지를 고취하고, 기관 경영전략과 도 정책사항 달성여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미비점에 대한 컨설팅과 피드백을 통해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처럼 전북도는 다양한 성과관리를 통해 도정 핵심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성과창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정책 혁신노력이 전 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으로도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과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핵심업무에 대한 성과창출을 도모하고, 목표를 향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반구십리(半九十理)의 자세로 도정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도가 그리는 미래가 현실이 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으로 비상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행동하는 평화’
 평창올림픽, 오늘 개최

마침내 9일 저녁 8시, 평창 올림픽플라자 개·폐회식장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이 열린다. ‘행동하는 평화’(피스 인 모션)가 주제다.

한국의 전통문화 정신인 ‘조화’, 현대문화 특성인 ‘융합’이 바탕이다. 출연진 3000여명이 한편의 겨울동화에도 같은 공연을 선보인다.

개회식 참석자에게는 판초, 무릎담요, 핫팩방식, 손핫팩, 발핫팩, 모자 등 방한용품이 지급된다. 방풍막도 설치돼 있다.

/뉴스

“국가예산확보 노력”
 남관우 전주시의원 5분발언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사진)은 8일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예산확보와 재정 투명성, 건전성에 대해 5분발언을 밝혔다.

남 의원은 전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을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하여 1조8,600억 규모다. 이는 전년 대비 1,128억이 증가한 것이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인 2조3,518억보다 4,856억이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주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699억 원에 이르지 못한 교부세 외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6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은 8,074억 원으로 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주시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취약한 재정 구조 속에서 전주시와 정치권 역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개성·의주 한옥, 전주 이설 검토해야”

시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포럼서

“자매결연 맺을 수 있다면 교류협력 추진 기반될 것”

여러 지자체가 거버넌스 구축 실현가능성 더 높아질 것”

통도시"라며 "지방정부차원에서 교류협약을 추진해 청소년과 문화, 체육 등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가 북한의 비슷한 성격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만 있다면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주가 전통문화와 관광을 중시하는 도시인만큼 개성의 한

옥을 전주의 한옥마을에 이축해 북한의 문화나 음식 등을 소개하는 등 통일의 근거지로 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가 '평창 이후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교류의 추진 방향과 기본 원칙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남북교류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로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과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및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도

시 교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남북관계에 있어 도시교류의 중요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역사·문화적 특성이나 지리적 인접성, 산업적 특성 등 대부분 지리적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법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김창희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희 전북여대하나 사무총장과 조정현 전주YMCA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희 사무총장은 "현재의 여건상 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여러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서로

협력한다면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하므로 시민들과 함께 북한의 실상과 통일문제를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전문가 포럼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보듯 통일은 무력이 아닌 시민들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작되며 이러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전주의 비전을 담아야 가장 인간적이고 인도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주가 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눈내리는 겨울
 순창의 겨울은 아름답습니다.

순창의참죽다도